

2026년도 제1차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위원정수	9인	재적위원수	9인
------	----	-------	----

1. 일 시 : 2026.1.22.(목) 11시
2. 장 소 : 제1예술관 2층 회의실
3. 위원 출석현황

구 분	참 석	불참석	참 석 위 원	불참위원
위 원	6명	3명	강혜원, 이명균, 이강문, 김관식, 윤원형, 오문일	이혁화, 이교갑, 김점분

4. 안건

- 제1호의 안 :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
- 제2호의 안 : 2025학년도 수업료 책정(안) 심의

5. 회의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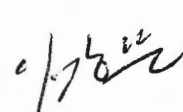


가. 개회

- ‘간사’가 재적위원 9명 중 6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,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‘26년도 위원들이 새로이 구성되었기에 위원장 선출진행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호선해 주길 요청하다.
- ‘이강문’위원이 강혜원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강혜원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호선하다.

나. 안건 심의

- 제1호의 안 :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
 - ‘임시위원장’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고 위원들에게 위원장을 추천해 달라고 하다.
 - ‘이강문’위원이 강혜원 위원을 추천한다는 의견에, ‘이명균’위원의 동의와 ‘김관식’위원의 재청이 있어 ‘임시위원장’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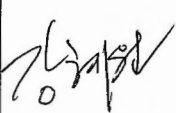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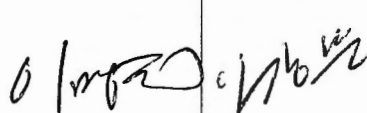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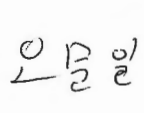

- 제2호의 안 : 2026학년도 수업료 책정(안) 심의
 - 제안설명
 - ‘위원장’이 제2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.
 - ‘간사’가 교육부장관 공고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법정 상한이 발표되었고 대학 당국에서는 2026학년도 수업료에 대해 동결, 2%인상안, 3%인상안으로 3가지 안을 내면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.
 - 토론 및 토론 종결
 - ‘이명균’위원이 기존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질문하다.
 - ‘간사’가 2026학년도 신·편입생부터 해당된다고 하다.
 - ‘윤원형’위원이 대학의 재정문제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책임을 학생에게 묻는 것이라고 하다.

서 명					오문일	
--------	---	---	---	---	-----	---

- ‘이강문’위원이 작년부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상을 했는데 해당 대학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다.
- ‘윤원형’위원이 대학의 재정문제를 왜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인상을 한다면 반대급부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나 복지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고민해 볼만 하다고 하다.
- ‘간사’가 현재 국내 입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정책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등록금 동결이라는 정책이 나온다면 본 대학의 등록금은 20년 이상 동결이 되는 것이고 이는 대학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내외부적인 요인인 인건비와 기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우리 대학처럼 소규모 대학은 등록금 수입총액이 적기에 더욱 대응하기가 힘들기에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다.
- ‘윤원형’위원이 등록금이 아닌 비등록금의 수입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지 질문하다.
- ‘간사’가 우리 대학의 비등록금 수입원을 나열한다면 평생교육원, 백운생활관, 기부 또는 전입금, 대구교육관 임대료, 산단 등의 사업비, 국제교육원 수업료가 있는데 이들로는 재정 확보가 어렵다고 하다.
- ‘위원장’이 20년내외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고,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하다.
- ‘이강문’위원이 등록금 2%인상에 동의한다고 하다.
- ‘이명균’위원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알겠지만 현재 재학생을 제외하고 금학년도 신입입생부터 적용하는만큼 2%이상에 동의한다고 하다.
- ‘윤원형’위원이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다.
- ‘위원장’이 지금까지 등록금을 동결하여 결과가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럴지도 못했고, 인상된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대학을 못가겠다고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하며 학생들의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다.
- ‘윤원형’위원이 1안의 동결안에 동의한다고 하다.
- ‘오문일’위원이 1안의 동결안에 동의한다고 하며, 장학, 교육시설, 교육여건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도 문제고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다. 또한,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등록금 인상인 안되며 장기적인 검토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.
- ‘위원장’이 경쟁도 대학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학의 재정을 위해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다.
- ‘윤원형’위원이 학생에게 반대급부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, 행동도 없는데 등록금 인상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거 같다고 하다.
- ‘오문일’위원이 대학의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학생들 입장으로는 동결해야 한다고 하다.
- ‘위원장’이 등록금 인상안과 관련하여 동결안과 2%인상안의 동의안이 같이 나왔으므로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며 각 동의안에 거수를 요청하다.
 - 표결 결과 : 2%인상안 4명, 동결안 2명
- ‘위원장’이 2026학년도 수업료 책정은 표결 결과 2%인상으로 의결됐음을 알리다.

6. 의결사항

- 제1호의 안 : 강혜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다.
- 제2호의 안 : 2026학년도 수업료 책정(안)은 2%인상으로 의결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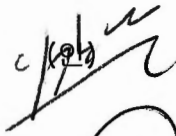



서 명					
--------	---	---	--	---	---

7. 폐회선언

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2026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[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.]

2025. 01. 22.

참석인원	위원장	강혜원 (인) 	위원	김관식 (인) 
	위원	이강문 (인) 	위원	윤원형 (인) 
	위원	이명균 (인) 	위원	오문일 (인) 
			작성자	김광진 (인) 